

종로를
자유롭게

서울을
상식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종로구제1선거구
서울시의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

5 조진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서울시의회의원 선거 (종로구제1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5	무소속	조진서	남	1978.02.25. (48세)	오호츠크 퍼블리싱 대표	옥스퍼드대학교 경영학 석사 (2008. 10. ~ 2009. 11.)	(전) 하버드비즈니스 리뷰코리아 편집장 (전) 쿠팡 뉴스룸커뮤니케이션 디렉터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194,791	1,194,791	0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0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355,031	0	0	해당없음
후보자	355,031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소명서

조진서는 이런사람



숫자 & 국제감각 갖춘 언론인 출신

-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졸업,
- 영국 옥스퍼드대 경영학 석사(2008. 10. ~ 2009. 11.)
- **언론계 15년**
코리아타임스·동아비즈니스리뷰 기자,
하버드비즈니스리뷰코리아 편집장,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 **회사원 4년**
쿠팡 디렉터, 삼성전자 엔지니어
- 개인사업: 오후초크 퍼블리싱(2023~)



종로구와 깊은 인연

- 본적, 부모님 고향 모두 종로구
- 독립유공자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종로구 동성고 근무
- 서초구에서 자랐으며 옥인동에서 약 6년 거주. 지금은 부암동 3년차에 접어드는 종로구 중급반 구민입니다.
- 직장도 종로구 동아일보와 (구)코리아타임스에서 가장 오래 다녔습니다.



범죄 전과 없음

세금 체납 없음

병장 만기전역

평범한 이웃

- 우리 지역 수영장·농구동아리 회원
- 책은 '노플라잇 세계여행'을 썼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및 '만들어진 성장'을 번역했습니다.



Questions

본질에 질문을 던집니다

62조원

서울시 2026 예산 누가 감시하고 있습니까?

2026년 서울시 예산은 약 51조원,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62조9000억원.
시의원 1인당 매년 5000억원 넘는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주시시오.

0.448

종로구 출산율은 대한민국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등입니다.
종로구는 육아·교육·체육 인프라가 뒤쳐져 아이를 키우는 젊은 가족들의 수가 적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양대 정당은 종로구를 '공공재'라 생각합니다.
집회·행사·마라톤대회를 우리들의 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박물관보다 놀이터가, 미술관보다 체육관과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112/112

서울시의회의원 중 양대 정당 소속 의원수

지난 임기 서울시의회의원 전원이 양대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제3자의 위치에서 수조 속 메기, 방부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론인 경력을 살려 꼼꼼하게 따지고 소셜미디어로
시민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겠습니다.

Answers

종로를 자유롭게, 서울을 상식적으로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이 쓸 예산을 심의합니다. 시청의 업무를 감사하고,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듭니다. 해외 자매도시들과 국제교류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제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대기업·외국계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의 핵심 일꾼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뒤쳐지지 않는 시의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관광지·광장·공공재 취급을 받아왔던 **종로구의 위상도 재정립하겠습니다.** 젊은이와 어린이를 우선하는, 젊은 활기가 도는 도시 속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서울시를 위한 아이디어

집회/행사/마라톤은 모든 구가 공평분담

도로를 막는 행사와 집회는 25개 자치구가 고르게 분담해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집회 공평분담' 조례를 제안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도로를 점유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BTS 공연 대혼란 기억하시죠. 종로구민의 대동맥인 세종대로는 항상 통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지하철도 부족한 우리 구입니다. 버스마저 돌리면 안 됩니다. 교통이 막히면 젊은 세대가 떠납니다.

간이 고속버스 정류장 시범설치 제안

서울의 버스터미널은 강남과 강동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강북 특히 서북지역에서도 주요 고속버스 노선의 승하차가 가능한 간이 정류장을 만들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세종시 가는 공무원들에게도 요긴할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티켓이 대부분이라 매표소 필요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제 도입,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서울보다 도쿄의 길거리가 쾌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전깃줄을 땅에 묻고 길가에 자동차를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도 이제 선진 도시 반열에 오른 만큼 '차고지증명제'를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무소속이 총대 매겠습니다.

**“4년 안에 다 이룬다는 약속은 안 합니다.
그저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을 잡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대중교통에 투자

진짜 저탄소 교통수단은 전기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입니다. 서울시의 비합리적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거기서 절감되는 예산을 대중교통 확충과 효율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쓰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은 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다 쓰는 입장이고 쓰레기 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당에 약 6000억원이나 배정되는 기후환경예산이 '지구 살리기'에 실질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 정비

저도 개인사업을 합니다. 서울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나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거나 복잡해서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및 예산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NGO 지원 줄이고 산하기관에 투자

사회·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시민단체가 지자체 지원사업에 의존하면 독립성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NGO는 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는 NGO보다 더 능력있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안정감 있게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

교통

▼ 현재의 인왕스카이웨이



▲ 인도를 넓혔을 때의 상상도

인왕스카이웨이를 보행자 우선으로 — 그림 참조, 홈페이지 참조
골목길 보행자우선구역 확대
자전거 우선차선 확대, 기울어진 인도 평탄화

아이·생활

어린이놀이터 확보에 예산 최우선 지원 — 우리 구에 제일 필요한 복지입니다

복지 역차별 폐지 — 40~64세만 쏙 빠진 교통비 지원 불합리합니다

2030 주민이 주도하는 서촌 축제 — 세종대왕 타령은 그만하고 젊은이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깁시다

거주환경

새 집 짓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 불합리한 재건축 규제 풀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관광버스 불법주차 단속 — ‘찍기 관광객’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과도한 문화유적 복원/규제 저지 — 사람이 있고 궁이 있는 것. 사직단 복원 케이스 재발 방지

네이버에 ‘조진서’ 검색



무소속 조진서, 그를 추천합니다

우리 동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사람, 조진서 후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하며, 작지만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갈 사람입니다. 조진서 후보의 진심에 한 번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화 · 주부, 사직동



제가 조진서 후보를 추천하는 이유는 조 후보가 당선되어도 제게 아무 보답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 댓가 대신 공동체의 비전을 약속하는 후보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선진국형 정치라 생각합니다. 선진국형 정치를 약속하는 조진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박찬용 · 칼럼니스트



조진서 후보님은 바깥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 이게 아닌가?'라고 내 생각이 바뀌고, '오 이렇게 해야겠다!'고 내 행동이 바뀝니다. 조진서 후보님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딱딱한 행동을 부드럽게 바꾸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재우 ·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사직동



세검정 조진서 터(造紙署址) 표석을 볼 때마다 조진서 후보가 떠오릅니다. 600년 전 관청 이름이라는데, '진'에서 받침 하나만 빼면 바로 '지'가 되거든요. 이름 새긴 표석 하나쯤은 남길 만큼 열심히 일할 분이라, 몇백 년 전부터 새겨진 예고가 아니었을까요?

김유정 · 회사원, 구기동



45.2°

당근마켓 체온
(재거래희망을 99%)



17,083명

네이버 블로그 이웃



시의원으로서의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도록** 돕겠습니다.



www.keepseoulsmart.com

종로구제1선거구
 서울시의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

5 **조진서**

네이버에 '조진서' 검색



designed by pasii